

# “암행감찰 댔다” 공무원들 몸조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대규모 암행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명절 또는 연말이나 실시하는 암행감찰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데다, 규모도 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수나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실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감사원 특별조사국, 행정안전부 조사관실 소속 직원 600여 명으로 ‘암행감찰반’이 구성됐으며, 지난 22일부터 각 지

## ‘공직 기강잡기’ 감찰단 600명 암행감사 광주·전남 지자체, 내부 단속 바짝 긴장

자체에서 감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무원노조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공직사회까지 술렁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암행감찰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달 중순부터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나 규모로 봤을 때 평소 상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암행감찰반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골프와 술자리, 금품수수, 민원처리 부실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도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 인력 보강이 되면서 시·군의 민원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 2~3명씩 팀이 돌고

있다”며 “구례, 강진, 광양 등에서 2~3일씩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절대 골프와 향응, 금품수수 금지 ▲근무시간 무단 이석 금지 ▲야간당직 철저 ▲민원서비스 강화 ▲점심시간 준수 등 공직자 근무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내부 단속을 나서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 김모(44)씨는 “정부 암행감찰반이 대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직사회에 퍼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저녁 술자리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최권일기자 chadol@



### “억류 아내 집으로 보내달라”

북한에 억류된 로라 링(오른쪽) 기자의 남편인 이안 클레이트 씨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밤샘 촛불 시위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여기자 유나 리(Euna Lee·왼쪽)와 로라 링(Laura Ling)은 지난 3월17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 “北 강남호 외 다수의 선박 감시중”

### 美 국방부 “강남호 검색 아직은 계획 없어”

미국은 무기류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해 추적중인 강남호 외에도 다수의 북한 선박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강남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 선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수의 (북한) 선박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모렐 대변인은 “우리는 그 선박(강남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 선박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남호 외에 다른 선박도 추적중이냐’는 질문에 “지금처럼 추적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 한 척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선박들에 대해 수년간 관심을 가져 왔다”면서 “이 선박(강남호)은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이력이 있지만, 다른 많은 선박들에 대해 관심이 가는 이력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강남호 외에 어떤 북한의 선박을 주시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강남호

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모렐 대변인은 또 강남호에 대한 검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원산 앞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긴장고조 행위를 예상하면서 “면밀히 주시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비한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해군 전력의 순환 외에는 새로운 배치는 없다”면서 “얼마전 그 지역에서 전력을 정상적으로 정비시켰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北 미사일 발사 땀 초기 요격해야”

### 美 의원 선제공격 시사

트렌트 프랭크스(공화)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은 발사 초기단계 이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미 의회 ‘미사일방어 토론모임(MDC)’의 공동장인 프랭크스의 의원은 23일 열린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은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로 이를 격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미사일 기술을 얻기 원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판매 선전이 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격추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프랭크스의 의원은 말했다.

프랭크스 의원의 ‘발사 초기단계 이전 파괴’ 언급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고 방송은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덴마크서 250만불 수출계약 MOU

### 박광태 시장 등 시장개척단, 28일까지 유럽서 투자유치

박광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유럽연합(EU)지역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단이 24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와 투자환경설명회에서 250만 달러의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사진>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레디스스스 스칸디나비아호텔에서 코펜하겐지역 광산업과 IT관련 기업인, 전문가 등 50여 명을 초청해 광주시 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2015년 유니버시티아이드회 유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날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시는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이탈리아의 아르네와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MOU를, 덴마크경제인협회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산업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학술회의 등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또 수출상담회에서는 (주)오픈테크놀로지 100만 달러, (주)휴먼라이텍이 2건 150만 달러



등 2개사가 모두 3건에 250만 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맺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2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주)인아레스 등 3개사가 3건 720만 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는 실적을 거뒀다. 박 시장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활동을 펼치고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북구 건강복지타운 전면 재검토를”

### 북구의회 김병도의원

사업 부지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지적된 ‘북구 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김병도 의원(북구마 선거구)은 25일 제1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북구 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지하공사로 인해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건축물 건립에 문제가 있다면 수역장 규모를 50m에서 25m로 축소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기본설계를 보면 관입석 710석 규모에 여자화장실은 3칸

에 불과하고 탈의실내 화장실·모유수유실 부재, 주차공간 협소 등 부대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지 선정에 있어 서도 주변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민간부지만 선정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착수한 배경도 따졌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산구 청렴도 낮고 의사소통 부족”

###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는 지리·문화적 특성을 가진 광주 광산구가 공직사회에서도 인맥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 상대적으로 청렴의식이 느슨한 것으로 평가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광산구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벌인 결과, 광산구는 인맥을 중시하는 공직문화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고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하위직 중심의 젊은 공직자와 부서장급 간부 공무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

고, 계약·관리·인허가 업무 등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의 구정 참여나 지역 언론의 감시 활동 등 외부 통제가 약한 것도 청렴도 제고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됐다.

권익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광산구는 반부패 TF팀 운영하고 무기명 사비내 내부비리 신고방을 개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1년 이내에 3회 이상 비리가 발생하는 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간부 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키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for a 7.9% public employee exam preparation seminar (7.9% 공무원 합격설명회) on June 27th at 14:30. The banne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seminar's focus on exam preparation and job opportunities.